

# 출판과 교육 정책

---

멕시코 역사·지리 검정도서의 교육과정  
라루세 출판사와 빠뜨리아 출판 그룹의 경험

블랑까 에스델라 가요쏘 산체스  
그루뵈 아체떼 리브레 멕시코  
라루세 출판사/ 빠뜨리아 출판 그룹

# 배경

---

-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가 19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.
- 정부의 기본 교육방침은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에서부터 20세기 초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근간이 되는 민족주의적 교육으로 변화했다.
-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정부의 교육방침은 더욱 세분화되어 국가의 감독하에 기획하는 교과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, 범위 및 품질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였다.

# 교육과정의 방향성

---

- 1980년부터 국가는 초기 교육과정 과목의 공식 프로그램 기획에 개입하였다.
- 초기에는 각 과목별 지도자료로의 승인여부와 관련된 설문지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였다.
- 1920년대부터 교육프로그램은 앞 서 언급한 사상적인 목적 외 교수법원칙에 의거해 작성되었다. 이 당시부터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기초교육과정으로 정의하였다.

# 교육과정의 방향성

---

- 교수법의 방향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과목의 교수법 발전과 각 행정부의 사상적 관점을 고려한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공교육을 관할하는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변화하였다.
- 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때로는 사회주의적, 기술적, 민족주의적 또는 민주주의적(1940년대 전체주의제도에 반대하는), 국제화적 (제 2차 세계대전 이후) 또는 보편주의적(인권보편선언 원칙에서 파생한)인 성향을 띠었다.

# 교육과정의 방향성

---

- 국제사회의 역동적인 경제활동은 1960년대부터 초등, 중등, 사범교육(교사양성)을 포괄하는 초기교육 교육과정의 구성과 핵심 설정에 영향을 주었다.
- 당시부터, 특히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각 과목의 내용은 학습자가 습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초기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갖춰야 하는 **지식, 자세, 자질, 가치 등**과 같은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.

# 교과서

---

-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게 된 이후, 국가는 교과서 사용 승인을 위한 검토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. (19세기 초)
- 대부분의 교육자료는 프랑스, 스페인,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비용을 수십년간 지불했다.
- 국내 출판생산 능력이 개선되면서 국내에서 **민간 출판사**가 국가 정체성 강화를 지향하는 교재를 출판하기 시작했으나 19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국민은 이러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.

# 교과서

---

- 국가는 교육사업 보편화를 공고히 하는 교재가 없는 상태에서 무상교육을 보장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.
- 1944년 당시 학자이자 외교관 출신인 교육부장관 하이메 토레스 보넷(Jaime Torres Bodet)과 아돌포 로베스 마테오스 (Adolfo López Mateos) 예술교육국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.

# 교과서: 국정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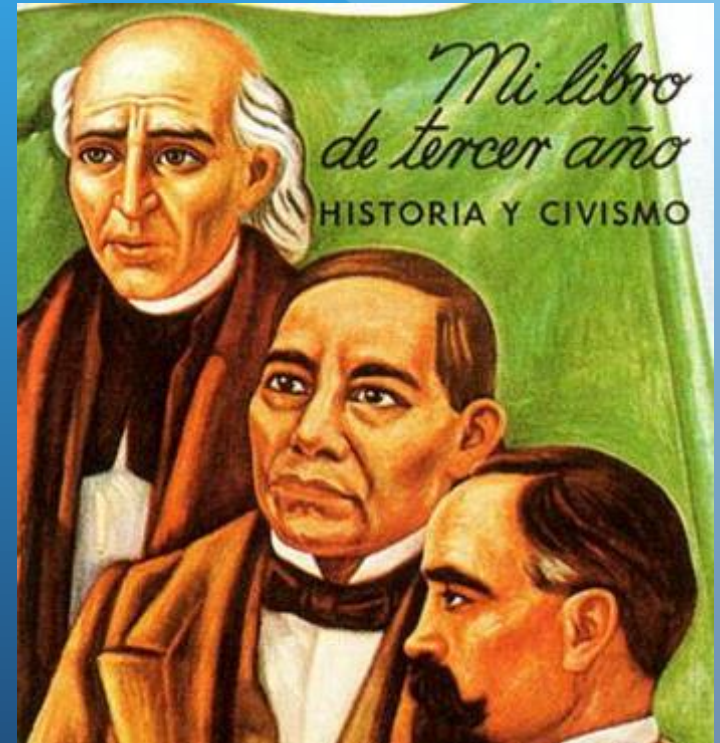
---

- 1958년 대통령에 당선된 아돌포 로베스 마떼오스 (Adolfo López Mateos)는 하이메 토레스 보뎃(Jaime Torres Bodet)을 다시 교육부장관에 임명해 국영출판사 설립사업을 추진한다.
- 국영출판사 설립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: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급한다, 국가가 전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, 사회평등을 이룬다.



# 교과서: 국정도서

- 1959년 2월 12일 행정령을 통해 국가무상교과서위원회 (Conaliteg)가 설립됨
- 무상교과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변호사 출신의 마르틴 루이스 구스만 (Martín Luis Guzmán)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함
- 국가무상교과서위원회는 설립 첫 년도에 19권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2권의 교사용 지도서를 편찬함. 교과서 표지에는 독립 150주년과 멕시코혁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영웅들의 사진을 실었다. 본 교과서의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**멕시코의 개념과 정체성**을 실어주는 것이었다.



# 교과서: 국정도서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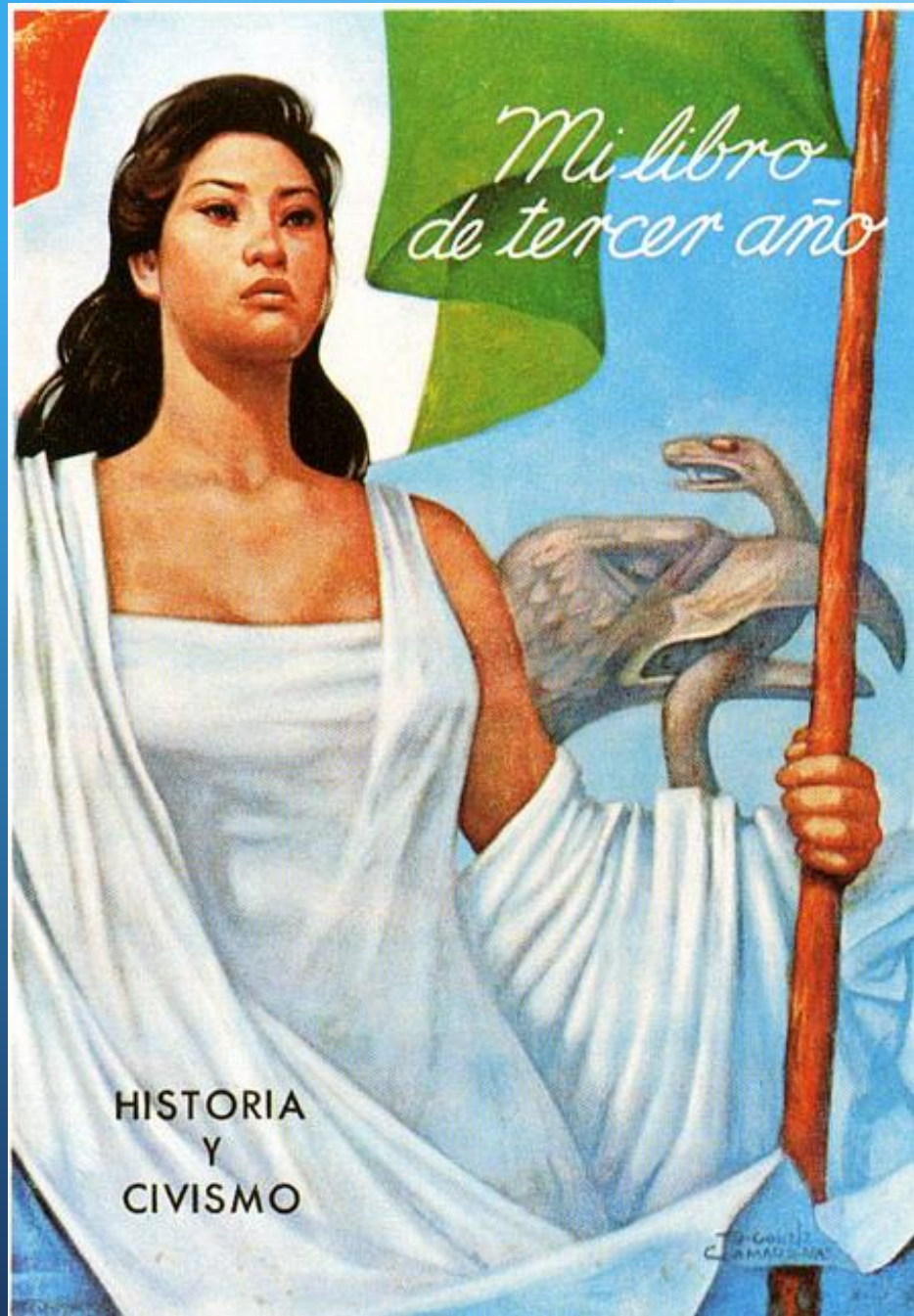
- 1962년 국가무상교과서위원회가 교과서관련 고수해 오던 민족주의적 시각은 국가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게 된다: 교과서 표지를 국가적 영웅에서 호르헤 곤살레스 까마레나(Jorge González Camarena)가 제작한 국가상징으로 교체함.
- 국가상징에는 국가(농업), 현황(공업)과 미래(교육과 문화)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다양한 요소로 요약되어 있다.
- 1962년부터 1972년 까지 국가상징은 350권 이상의 교과서 표지를 장식했다.



조국, 호르헤 곤살레스 까마레나, 1962  
유화, 120 x 160 cm  
소장: Conaliteg  
사진: 엔리께 보스델만



무상교과서 표지용으로  
각색된 작품



# 교과서: 국정도서

- 표지 교체. 1972년 이후,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출판된 새로운 교과서 표지에 국가무상교과서위원회(Conaliteg)는 좀 더 현대적인 작품들인 당대 대표적인 예술작품을 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.
- 취학연령 인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점자교과서, 대형교과서(약시 학생용), 참고서,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했으며 그 외 학교도서관, 학습도서관, 유치원생용 도서, 중학생용 교과서, 화상중학교용 교과서, 42개 언어로 이뤄지는 원주민 교육용 도서를 개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함.



# 교과서: 시민사회의 참여

---

- 1982년 교육과정 개정 이 후, 교육부는 기초교육과정 학습계획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기초교육과정 교과서 제작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있다.
-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편찬을 교수, 지식인을 비롯해 사범학교 교사를 공모했다. 당시까지 일부 선별된 저자만 편찬과정에 참여했다.
- 그 후, 1989년 전문기술자 양성(신자유주의)에 기반을 두었던 기초교육현대화를 위한 국가적합의의 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새로운 변화가 이뤄져 내용과, 삽화, 형태 및 디자인이 다른 새로운 교과서가 출판됨. 특히, 무상교과서 사업은 그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**국가사업의 모범사례**로 조명을 받게 된다.

# 교과서: 시민사회의 참여

---

- 1992년 개정을 통해 무상교과서 제작이 늘어나고 사용범위도 확대되었다.
- 1997년 부터 **중학교 교과서 무상보급 사업**이 추진됨. 초기단계에는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1998-1999 학년에는 중학교 전체 학생 중 60% 이상에게 보급함. **출판산업**의 참여가 결정적인 기여를 함.
- 몇 년 후, 대통령령에 따라 멕시코 전체 중학생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급함.

# 교과서: 민간부문의 참여

---

- **절차**는 각 과목의 교육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거해 출판사들이 직접 편찬한 교과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다.
- 교육부는 접수한 교과서 제안서를 교육자료 및 전산자료 관리국(Dirección General de Materiales e Informática Educativa)을 통해 검토 한 후 적정성 여부에 따라 학교에서의 사용을 승인한다. 교육부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

# 교과서: 민간부문의 참여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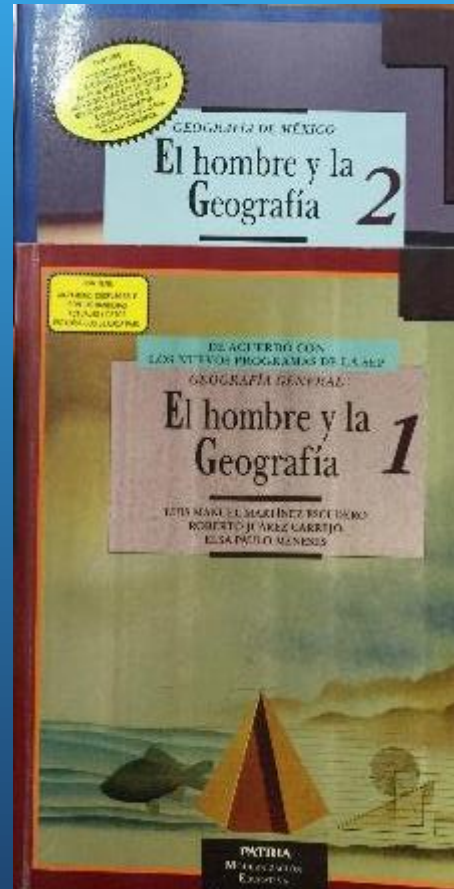
- 1997년 최초로 중학생용 교과서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민간 출판사의 제안을 접수 하기 시작했다. 당시까지 중학교 교과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었다.
- 첫 번째 시도에서 중학교 3개 학년 현행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의 교과서를 승인했다. 모든 교과서는 합의서 제 236호의 평가기본방침을 준수해야 한다.
- 민간 출판사는 한 가지 기준만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지만,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많은 교과서를 제안해 그 목록이 풍성해 졌다.

# 교과서: 민간부문의 참여

---

- 첫 번째 평가과정에 Santillana, Esfinge, Fernández, Trillas, Grupo Editorial Patria, Ediciones Larousse, Limusa와 같은 출판사들이 참여했다. 이 중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50년 이상 된 출판사로 멕시코에서 도서를 출판하거나 수입·유통하는 출판사다.
-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(기대 이익) 1999년 이후 참여하는 새로운 출판사와 저자 및 작업팀이 증가함. **새로운 시장**이 형성됨.

# 1997년 Patria 출판사 교과서



# 교과서: 민간부문의 참여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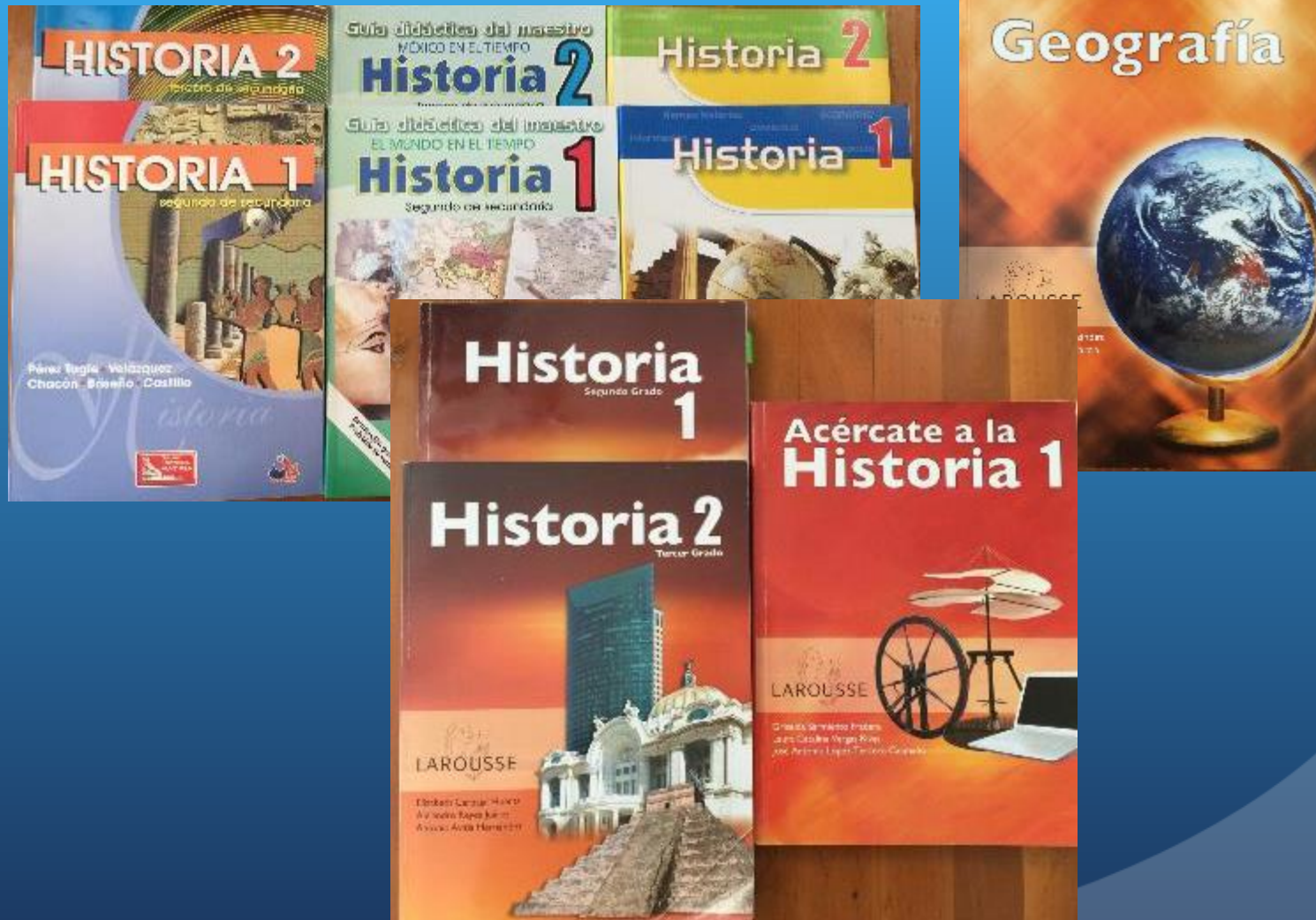
- 2003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식이 유지됨. 2003년 기초교육의 교육과정 및 행정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발표함. 정부와 정권교체와 일치함.
- 2006년 5월 교육부합의서 제 384호를 통해 능력향상에 중점을 둔 차별된 교육모델을 지향하는 중등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문서가 발표됨.
- 새롭게 발표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공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14개 과목에 대한 새로운 평가과정을 개시하였다. 기본 방침문서는 교육부합의서 제 385호다.

# 교과서: 민간부문의 참여

---

- 새로운 공모를 통해 외국어과목인 영어를 포함한 17개 과목에 대한 저자 목록과, 출판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교과서 제안을 접수하였다.
- 새로운 교육과정과 이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2006~2007년, 2007~2008년 및 2008~2009년도에 걸쳐 실행되었다. 2009~2010학년에는 과거에 실격 처리된 자료와 일부 새로운 제안을 접수했다.

# 2006-2010년 Hachette 교과서 목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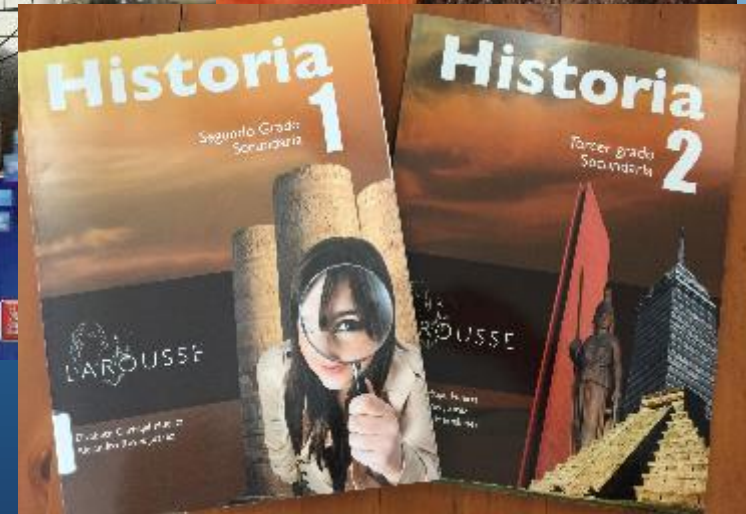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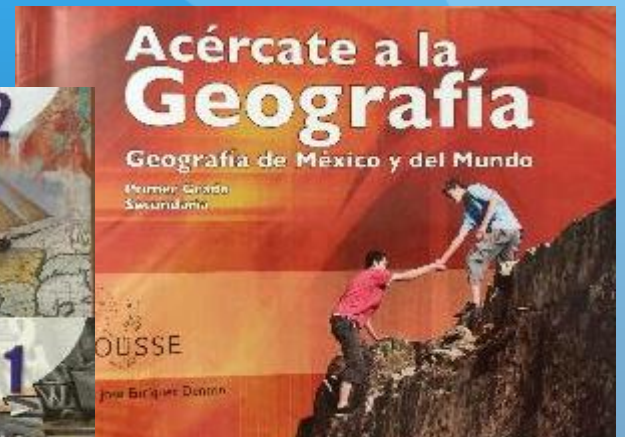
# 교과서: 민간부문의 참여

---

- 2011년에는 차기 정부교체를 고려해 교육과정 조정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. 새로운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은 기초교육의 연계를 규정하는 합의문 제 592호를 통해 2011년 8월 19일 관보에 발표되었다.
- 제안서 평가를 위한 원본제출 방침은 합의문 제 385에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문 제 689호를 통해 2013년 7월까지로 변경됨.
- 본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서는 2012-2013학년, 2013-2014학년과 2014-2015학년에 걸쳐 실행되었다. 2015-2016학년에는 과거에 실격한 자료들과 일부 새로운 제안을 접수했다. 2016-2017학년에 대해 과정 2012-2013학년에 승인된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.



# 2012-2015년 Hachette 교과서 목록





# 출판과정: Hachette Livre México

- Hachette Livre는 전세계 4대륙에서 150개의 브랜드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이다.
- 멕시코에서는 2006년부터 Ediciones Larousse와 Grupo Editorial Patria라는 브랜드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공동출판을 하고 있다.
- Grupo Editorial Patria는 1933년부터 교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중학교 교과서를 출판한다.
- Ediciones Larousse는 1985년 참고서 출판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 진출했다.



# 출판과정: Hachette Livre México

---



- 역사와 지리 과목과 관련해 Patria 출판사는 2006년부터 검정도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Larousse 출판사는 2006년 역사과목에 대한 인가를 획득했고 2010년에는 지리과목에 대한 인가를 획득했다.
- 앞서 언급한 양 출판사는 각 각 획득한 해당 인가를 유지하고 있다.

# 출판과정: Hachette Livre México

---



- 교육부 공식 문서를 통해 규정된 저자 또는 출판사 원본 제안서:
  - P현행 계획 및 프로그램 (2011)
    - 내용, 핵심 및 방법론
  - 지침 합의문 (제 689호)
    - 물리적 형태, 그래픽 및 내용구성(활동, 보충부문)
  - 교육부 출판기준 (2013)
- 교과서 평가사업 관련 경험

# 출판과정: Hachette Livre México

---



- 출판제안 정의서 (통합적인 개념)
- 교육 구조 기획
- 저자 선정
- 편찬
- **교육적 · 기술적 검토**
  - 공식적인 지침 준수여부 (핵심, 방법론, 내용)
  - **최신성 및 과학적 진위성에 대한 검토**
  - 공동 집필자: 각 분야 전문가 및 현직 교사

# 출판과정: Hachette Livre México

---



- 교육부 검증
  - 2013년부터 이중맹검
  - 내용
  - 출판이력
- 공식문서 **해석**에 따른 당국의 소견(종속관계가 없는 자)
- **의무적인** 당국의 소견 적용
- 최종 승인
- 국가무상교과서위원회 선정 목록에 게재